국민연금기금운용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5차 회의록)

1. 일　　시 : 2017년도 6월 28일(수) 07:59~09:33

2. 장　　소 : 코리아나호텔 로얄룸(7층)

3. 참석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부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원희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광호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혜경 위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인상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수현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경식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위원

4. 불참위원 :

보건복지부	정진엽 위원장
기획재정부	고형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위원
고용노동부	이성기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성봉 위원

5. **배 석 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장재혁(간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최경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이수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박영규

KG제로인 신중철

6. **의결안건 :** 〔의결17-6호〕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의결17-7호〕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7. **보고안건 :** 〔보고17-15호〕 2017년도 제4차 회의록(요약)

〔보고17-16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기본 계획(안)

〔보고17-17호〕 2017년도 4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8. 회의경과

(회의시작 07시 59분)

○ **장재혁 간사 :** 부위원장이신 김상호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의예정인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설명을 위해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박영규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인 제로인의 신중철 전문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마지막으로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은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지난해 기금운용성과와 그 요인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성과개선을 위해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성과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보상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외부기관을 비롯하여 전문위원회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단계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의안건은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

급률(안)입니다.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총액을 산정하였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으로 지난 2월 회의 시 기금운용위원회 이정식 전임 위원께서 보고를 요청하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계획(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 이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추계를 통해서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지난 6월 9일 추진 계획(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장재혁 간사 :** 취재진들께서는 회의장 정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보고사항 :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김상호 위원장 :**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4차 회의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면서 4차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고 식사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 중)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들께서 식사를 마치신 것 같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검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정 위원 :** 저번 5월 25일 회의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공투자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관련해서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기정사실화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기금의 독립성이라든가 안전성, 수익성을 잘 보고 이미 결정해 놓은 것처럼 하지 말고 논의를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용이 전혀 이 회의록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이 여기 말고도 따로 기록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약을 해서 여기만 해 놓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네.

속기록에는 다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 **장재혁 간사 :** 예.

○ **류기정 위원 :**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이 주제와 관련해서,

○ **김정연 서기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따로 해서 정리를 해 놓고요, 거기에는 모든 말씀들을 다 토씨까지 하나 기록을 해 놓고 여기에는 저희가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

○ **류기정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 **장재혁 간사 :**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있어요?

○ **류기정 위원 :** 안건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것만 요약해서 하고 기타 변론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속기록 상에 기재해 놓는다는 얘기이신가요?

○ **장재혁 간사 :** 그것은 아닙니다.

○ **류기정 위원 :**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안이 중요한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사안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드는 것은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

기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가 경중을 가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장재혁 간사 :** 실무자가 봐서 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의도는 없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지금 류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그것을 보완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1년 후 공개 예정인 속기록도 조금 전에 이의 제기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된 내용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정하기에 앞서 해당 발언을 하신 정혜경 위원, 류기정 위원 두 분이 발언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분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연 서기관 :** 죄송합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중기자산배분안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중기자산배분안은 비공개안건이기 때문에 이 요약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기자산배분 내용 외에 공공투자 말씀들을 요약해서 다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두 분 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죠?

○ **류기정 위원 :** 예.

○ **김상호 위원장 :** 알겠습니다.

나. 의결사항 :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다. 의결사항 :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 **김상호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번 심의안건인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에 대해서 두 개를 동시에 보고받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혁 간사 :** 자료 13쪽입니다.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입니다.

자료 15쪽 의결주문은,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로는 성과평가보상전문의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말 현재 시가기준으로 558조 2,991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년대비 9.0%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부문이 99.9%입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자산군별 비중은 채권이 54.2%, 주식이 33.7%, 대체투자 11.4%입니다.

'16년도 기금 전체의 금액가중수익률은 4.75%이고 수익금은 24조 5,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부문의 시간가중수익률은 4.69%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0.11%p 낮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는 5가지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주식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체투자의 세부자산군별 비중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용 규모 확대와 지방이전에 따른 조직 및 인프라 강화, 성과요인분석 체계화 및 정교화 이런 내용으로 제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는 운용체계, 리스크 관리개선 등을 포함해서 전문위원회가 정책제언을 준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평가기관이 먼저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위가 검토한 다음에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에서 4월까지 외부평가전문기관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문위에서는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0쪽입니다. 20쪽과 21쪽은 금방 보고드린 평가 체계하고 다섯 차례 전문위원회의 운용경과를 기록해 놨습니다.

22쪽입니다. '16년도 기금운용 현황 및 수익률입니다. 위에 기금규모와 금융부문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밑에 수익률 부분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3쪽에 시간가중수익률도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참고로 밑에, 시간가중수익률이 4.69%인데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채권에서는 1.83% 그리고 해외채권은 4.01% 그리고 국내주식이 5.64%, 해외주식이 10.13% 그리고 대체투자 쪽에서 9.99%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회복세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에 따라서 특히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채권 대비 일본과 EU에서는 시장금리하락에 따라서 해외채권수익률이 상승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가 음으로 작용한 데는 대체투자의 벤치마크 대비 투자비중 자체가 하회했고 해외주식에서 낮은 초과성과가 난데서 기인합니다.

24쪽입니다. 이 수익률 4.69%를 요인을 분해해 본 겁니다.

먼저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입니다. 이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매년 5월경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5월경에 정하는 자산배분안, 그 자산배분안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것이 4.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자산배분안을 가져가서

기금운용본부가 소위 전술적 자산배분안을 짭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마이너스 0.0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산선택효과는 이것도 기금운용본부가 집행과정에서 섹터라든지 종목을 벤치마크와 다르게 액티브 쪽으로 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0.05% 났다는 겁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면 2016년도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가 각각 그렇게 분해가 되고 3년 평균과 5년 평균을 봐 주시더라도, 3년 평균을 하더라도 역시 전략적 자산배분의 효과가 전체 수익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즉,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따른 효과가 크다, 다음에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전술적자산배분의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운용본부 차원에서 액티브 하게 자산선택을 하고 중복한 것은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3년과 5년 평균을 하게 되면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분야입니다. 채권투자규모는 총 279조 3,438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10조 7,000억 원이 순자산 증가하였고 수익률은 국내채권인 경우에 1.83%,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0.05%p 상회했다는 말씀이고 요인으로는 직접운용 쪽이 1.80%, 위탁운용 쪽이 2.04%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해외채권은 총투자규모가 23조 2,1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4.01% 보이고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0.39%p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요인으로는 직접운용 쪽에서 3.91% 그리고 위탁운용 쪽에서 4.15%입니다. 특히 직접운용 쪽에서 당초에 미국금리가 인상될 것을 고려해서 만기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전략을 했는데 의외로 예상보다 낮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익률이 다소 하회한 그런 요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쪽에 주식분야입니다. 국내주식은 총 102조 4,34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7조 4,563억 원 증가하였고 수익률은 5.64%를 보이고 있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약 0.40%p 상회하고 있고, 국내주식 쪽 요인은 대

형주의 비중이 높은 직접운용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냈는데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 쪽에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주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소형주 쪽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 것에 따라서 벤치마크 대비해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쪽에 해외주식에는 85조 6,20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전년도에 10.13% 나왔고 요인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그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대체투자 쪽은 총 63조 6,686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9.99%, 다만 전년대비 2.21%p 하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30쪽 보고는 박영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30쪽 국민연금기금 정성평가부분.

○ **박영규 성과평가보상전문위** : 제가 원래 보고를 맡은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죠.

국민연금기금은 정성적으로 볼 때 국내 채권비중은 줄어들고 주식 및 대체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원래 저희가 정해놓은 기조에 맞게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부문수익률이 벤치마크를 하회한 것은 전략적인 자산배분 비중 대비 해외투자에서 음의 초과성과를 기록한 반면 양의 초과성과를 기록한 대체투자비중이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에 못 미쳐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크를 하회했고요. 현재 대체투자 같은 일부 자산군에서 자꾸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현재 리밸런싱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2017년도 정책제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배분의 초과 성과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술적 대응이 어려운 대체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짧게짧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원이나 기금운용본부에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자산군 특히 해외자산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자산배분이나 자산선택, 외환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역시 정책제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5년까지 주식·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을 직접운용이랑 위탁운용으로 나누던 체계를 기금운용본부가 패시브-액티브라고 개념을 바꿔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전환한 것이 '16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직이나 시스템 측면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액티브-패시브 중에 액티브 쪽이 목표액티브위험은 상회했으나 목표초과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술적 배분역량강화를 포함해서 액티브 운영의 역량강화 및 수익률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액티브의 비중을 패시브에 비해서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정성평가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이어서 전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 과제를 2017년도 정책제언으로 기금운용본부나 연구원에서 과제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5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주식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 그야말로 선량한 청지기로써 국민의 재산을 운영하는데 특히 주식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의 각 기업에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배구조 같은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지배구조 문제나 또 각 배당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아까 언급했듯이 대체투자와 같이 일부 자산군에서 자꾸 소위 말하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자산배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것을 축소나 확대해서 범위를 맞추려다 보면 거래비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 거래비용 자체가 사실은 잠깐만 기다리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 리밸런싱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통해서, 특히 대체투자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범위를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정책제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체투자의 세부 자산군별 비중의 전략적 접근, 이것은 대체투자 안에는 헤지펀드도 있고 인프라투자도 있고 부동산투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산군이 있습니다. 이 자산군에 대해서 대체투자의 전체 자산군 비중뿐만 아니라 이 세부자산군 비중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략을 가지고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세 번째 과제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네 번째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주 이전 등으로 일부 인력의 이탈도 있었고 또 사실은 해외운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기관을 접속하는데 있어서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네 번째 정책과제로 부과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군별 내에서, 특히 해외 쪽에서 환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또는 섹터에서 어디에서 성과퍼포먼스의 요인이 나오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것을 다섯 번째 정책과제로 부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재혁 간사 :** 계속 이어서 자료 35쪽입니다.

금방 보고드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8월 초까지 일간지 및 경제지 각 1개 이상의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제언 주신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또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그런 과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입니다. 자료 99쪽에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입니다.

101쪽입니다. 의결주문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로서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성과 평가를 심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 달성여부를 먼저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지난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0.98%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은 충족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6년도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성과급지급률은 23.3%입니다. 세부내용은 목표달성 부분이 7.7% 그리고 조직성과급 부분에서 15.7%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운용직의 목표성과급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 조직성과급 15.7% 그리고 장기성과급 분야는 지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구성은 목표성과급과 조직성과급, 장기성과급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목표성과급 비중이 약 60~9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운용본부 전체성과에 따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직군에게 지급합니다. 산식은 운용본부직원 전체의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 총액을 다 합한 것의 60%에다가 3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를 산출해서 서로 곱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직성과급

은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데 운용체계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노력도를 평가합니다.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20%에 정성평가 성과지수를 곱해서 산출됩니다. 장기성과급은 2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자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106쪽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가운데, 성과급 산정해서 목표성과급은 기본급 총합이 182억 9,300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가 1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7쪽에 운용본부 목표성과급이 14억 1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성과급은 기본급 총합에 성과지수 78.4%를 곱해서, 108쪽입니다. 운용본부조직성과급 28억 6,9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성과급은 5개년 평균 기금 전체의 목표달성률 값이 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23.3%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대비해서 0.4%p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적으로 1인당 평균지급액은 1,68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111쪽에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원안 심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논의경과를 박영규 위원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 것은 빼고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규 성과평가보상전문위 :**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빼고, 저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률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률안이 여러분들 110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formula 적으로, 개량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개량적으

로 계산된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다만, 지난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직 보수에 대해서 이것 역시 전주 이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탈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운용직 보수를 개선하는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를 제시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7월부터 현재 성과급이 기본급이랑 성과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보수가. 그것의 적정비중을 검토하고 또 운용직들이 서로 경쟁체계에 있는 실제 시장의 운용직들의 보수와 펀드매니저들과의 보수와 비교·검토해서 전체 체계에 대해서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협의하기로 그런 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 중에 이루어질 과제이고 2016년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formula 대로 계산된 것을 저희가 의결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식 위원 :** 그냥 단순한 것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1인당 1,700만원 정도가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너무 적어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 다시 한 번 보수체계 보수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더불어서 장기성과급을 이런 상태로 놔두면 지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계로 보면 장기로 근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5년간 해서, 사실 저희들이 목표가 높은 편이거든요. 목표가 높은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취지로 목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도 안 줘 버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성과급 체제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은 많은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이인상 위원 :** 32쪽에 2017년도 전문위원회 정책제언 중에 네 번째 운용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프라 강화 부분에서, 지난번에 2차 때인가 제가 보니까 지방이전에 따라서 많은 규모의 인원들이 조직이탈이 있다고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전하고 나서 이탈 규모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그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다음에 101쪽에 운용수익률이 보니까 소비자물가대비 봤을 때 3년 연속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 먼저 인력 이탈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28일 전주로 이전했는데 이전 직전 2016년 말부터 해서 30명 정도의 직원이 이탈했습니다. 전주로 가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충원을 계속해서 올해 연초에 14명 정도 채용을 했고 현재 공고가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30명 채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45명 정도의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인상 위원 :** 그게 지속되지 않죠?

○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 그리고 이탈 인원은 전주로 간 이후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거의 예전의 자연스러운 이탈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두 번째 질문사항을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수철 운용전략실장 :** 두 번째 질문사항은 42쪽, 43쪽을 숫자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42쪽 맨 아래쪽을 보시면 기금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GDP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이 있고요. 지금 2016년도는 GDP+CPI상승률을 0.98%p 상회했고 과거 3년은 0.89%p 상회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988년부터 쭉 기금의 수익률과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금리수준, 주가상승률을 쭉 표시해 놨고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기금자산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뒤에서 세 번째 칼럼인데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절대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이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자산배분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추이를 늦추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 **이수현 위원 :** 보면 벤치마크 수익률하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기타 민간의 자산운용사의 성과율은 어떻게 비교가 나왔는지, 물론 명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차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 있나요?

○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내 다른 연기금과 비교를 주로 합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탁월하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돌아가면 민간은 종합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섹터별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위탁을 보시면 저희들이 준 자산운용사들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탁보다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게 수익률이 약간 상회합니다.

○ **이수현 위원 :** 성과지급을 할 때 우리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너무 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원희 위원 :**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단순하게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KIC 한국투자공사 거기에 15년 평균 보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던 게 우리는 반절 정도 돼서 2016년 성과급이 아직 KIC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결정한 것을 보면 이후에 비교가 가능할 텐데 현재 급여체계 안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국내 안에 있는 다른 투자 운용하는 데하고도 열악하고 또 오늘 보신 것처럼 장기성과급이 5년 평균 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는 게 기준상으로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거 이탈이 일어났던 실장급이나 팀장급이 시장 평균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체계의 문제를 개선을 해 줘야 조금 더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은 이번 보고를 드릴 때 꼭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개선해 나아갈 때, 저희가 급여를 떠나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성과급이 개선되고 안건에 상정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국내에서도 비교했을 때 거의 반 수준 정도에 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많이 이탈돼서 아마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탈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고 7월부터 들어가는 데서는 조금 더 깊이 이런 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 **장재혁 간사 :**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서 이게 성과급수준, 근본적으로 기본급 이게 모든 게 국민연금공단이 결국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평과 틀 속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정기국회 때 기금운용의 투명성, 독립성 요구가 굉장히 메인이지만 관련해서 운용본부의 역량 자체를, 사실 운용본부 역량을 이런 성과급이나 기본급을 통한 투자대비 국민이 얻어가는 수익금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부터 공공

기관 운영평가로부터 적용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때 반드시 그렇게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것은 별개로 우선 이 하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의사를 기재부에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개량적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기금운용본부와 같이 기재부에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서 다른 기관과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이쪽 수익률 부분은 작년까지는 국내 다른 연기금과 비교해서 쭉 해서 탁월하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바뀠습니다. 국내에 다른 연기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제는 안 맞다, 그래서 해외연기금 일본이라든가 미국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 **김상호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 **정광호 위원 :** 하나만, 아마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 그것을 기반 해서 익년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기반 해서 중기자산배분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성과급지급률 결정, 이런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각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서로 상호간에 연관성이 없고 전년도의 성과가 이후에 반영되는 구조도 좀 미약해 보이고.

그게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갖는 이유가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인지 단순한 착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재혁 간사 :** 물리적으로 사실 일반 정부 결산도 보시면 이게 전체 쉬트를 다 정리하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걸리는 시간, 결국 우리 기금 쪽도

일정 결산을 다 하고 숫자를 맞추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산배분안 자체가 사실 5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리고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산배분안하고 연결되고 다음에 자산배분안이 결국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전술적 자산배분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로 프로세스가 되도록 최대한 바꿔보려고 합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예.

○ **류기정 위원 :** 끊으시려고요? 분위기가 빨리 끊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31페이지 보니까 전문위원회 정책제언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있나요? 5번까지 보면 성과평과보성전문위원회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충분히 항상 해 왔던 말씀인 것 같고 성과평가보상 관련해서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박영규 위원님이 늘 고생은 하시는데 이게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해야 되는 여부를 넘어서 도입을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인지 도입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잘 했다, 못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정책제언으로 나올 수 있는 (안)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렇다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규 성과평가보상전문위 :** 이것은 저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확정해서 도입하기로 해 놓고 그 내용을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목처럼 도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해외의 연기금들도 이것을 많이 도입한 상황이고 그래서 도입을 한다면 어떤 내용

으로 할 것인가 사전적인 결론이나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백지에서부터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한두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일단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저희가 회의에서도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처우가 못 미치면 그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여기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세한 현실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일단 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목소리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기재부로 가고 국회로 가든지 다음 프로세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과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계 같은 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지만 107쪽을 보면 목표성과급 같은 데 보면 목표달성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다 그냥 이것을 카운터 하지 않고 플러스일 경우에만 카운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산정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추가의 의견이 없으시

면 두 개의 안건인,

○ **김준경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술적인 것이고요. 작년도 대체투자평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체투자평가 적절성 검토하셨는데 96쪽 보시면 검토과정에서 모집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산된 대체투자 자산 모집단 107개 중에서 49개를 채택하셨는데 어떻게 채택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랜덤하게 이미 확률적으로 채택하신 것인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왜곡, 오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오류발생패턴은 어떤 것인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런 여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의 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해서는, 이 사안은 국민연금의 스탠스를 크게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의결권행사 중심에서 주주권행사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많은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우려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사회주의 이러한 게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구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금운용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셔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적정, 한국형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대규모 위탁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지금 시중에서는 위탁운용사 길들이기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도를 섬세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우선 첫 번째 건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어느 분이 답을 하실까요?

○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 리스크관리센터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07개 펀드 중에 49개를 선택한 것은 원래 저희들이 공정가치평가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산된 펀드하고 저희들이 또 공정가치에 포함이 제외되는 펀드는 1년 미만 그리고 펀드수요금액이 100억 미만 이런 펀드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07개 이제까지 해산한 펀드 중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49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평가에 있어서 오류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정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 가지고 있던 저희 펀드 중에 외부 위탁펀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위탁운용사가 하든 위탁운용사가 평가기관을 고용을 해서 하든 그렇게 하고 그 자산들의 평가결과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 기금에서는 검증기관을 따로 고용을 해서 그 평가결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컨대 평가기관하고 검증기관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리뷰를 하고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그 가치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관과 검증기관의 이견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소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많은 고민을 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사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재혁 간사 :**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해서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인가 아마 공모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두 차례를 공모를 했는데 심사결과 가장 적합한 연구기관이 선정

이 안 되고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선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월경까지 하는데 스튜어드십과 관련한 도입의 적합성, 물론 가치관에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한국형 스튜어드십의 도입 여부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연구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세부적인 그런 도입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정도의 범위로, 그런 것을 특히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기업, 특히 경영계나 노동계 이런 데 목소리를 연구과정 속에서 같이 청취를 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원희 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 국장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아까 제안돼 있는 보수의 최근 변동이나 시장대비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16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고사항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기본 계획(안)』

○ **김상호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기본 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간단히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혁 간사 :** 자료 117쪽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룰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물론 또 관련성이 당연히 있고요. 특히 기금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제4차 재정계산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을 5년마다 추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계결과에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이라든가 제도개선, 기타 기금운용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2쪽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특히 제1차 재정계산을 한 결과, 2003년에 1차 재정계산을 했었는데 그 결과 2007년에 연금개혁이 꽤 큰 범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세계의 연금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사실, 물론 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지만 굉장히 모델적이고 모범적이다. 사실 연금기금이 아직 계속 적립금이 쌓이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연금개혁을 실시한 것 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참고말씀 드리고 2차, 3차 때는 특별하게 그에 따른 연금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4차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연금개혁에 대한 당위성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123쪽에 하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홍보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런 것이 광범위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도 아직 충분히, 연금 자체가 성숙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낮은데다가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작년에 최순실 사태라든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더욱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24쪽에 이 4차 재정계산을 하는 데는 3가지 전문위원회 구성, 이 전문위원회는 그야말로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전문가들이 재정추계를 하고 또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도발전 즉, 연금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 놓고 기금운용체계 개선 그런 내용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내 놓는 것이 이 재정계산에 관한 위원회의 하나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 장관이 법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안)을 마련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마련하고 법상으로는 그것을 2018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나가되 중간 형태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거쳐서 국회까지, 그렇게 되면 정부(안)이 나오고 다음에 또 그 (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합의 그런 결과가 같이 모여져서 국회로 접수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고 그렇게 반영이 되는 형태로, 이것은 물론 하나의 (안)입니다마는 그게 내년, 일단 스타트는 이미 저희가 이번 주에 각 단체별로 전문가들 위촉해 달라는 위촉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최종 끝나는 것은 내년 10월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6쪽과 127쪽 주요논의과제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128쪽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쪽에 3차 재정계산 결과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호 위원장 :** 설명하신 것처럼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차 2013년 재정계산 할 때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그때 가중한 것보다 여러 모로 악화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몇 년, 숫자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고갈시점하고 적자발생 연도가 당겨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2차, 3차의 경우에는 원래 이 재정계산 하는 본 목적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차하고 3차는 조금 전에 간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부여건 때문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4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건이 있음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와는 달리 연금수급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번 재정계산에는 단순한 재정 미래추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제도개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재정계산 왜 하는지 사실은 본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이 제도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당부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 **정광호 위원 :** 제가 한 말씀, 노동조합을 하다보면 각종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정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2인 내지 3인 각 위원회에 들어가고 전문가가 민간부문, 공익부문 해서 반반씩 6명씩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위원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왕에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련된 논의를 해오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나 전문위원회나 이런 데의 위원 중에서 한 분 정도를 각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이 위원회들이 논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취지도 반영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형평성도 높

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장관이 추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이인상 위원 :** 저도 사실 같은 내용인데, 공익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운용위하고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가 여기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상호 위원장 :** 혹시 간사께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 **장재혁 간사 :** 각각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기본 생각은, 이것도 결국 내년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어느 정도 경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상호 위원장 :** 하나 참고로, 이 제도개선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익대표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 3차의 경우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을 때 소수의견, 다수의견 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토론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저도 한 명의 전문가로 참여했을 때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부탁사항이나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17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잡아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폐회 09시 33분)

위 會議錄은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 기금운용위원회

會議內容과 相違없이 速記法에 의하여 記錄, 作成되었음을

確認함.

2017年 6月 28日

도울速記事務所

速 記 士 姜 朱 映